

촛대[燭臺] - 일상용 촛대 ③

燭臺



사진 1

등잔대와 촛대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는 조선 후기 양식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두세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진전된 형태로 볼 수 있겠다. 대개 의장(意匠)이 화려하고 재질 또한 무쇠나 놋쇠, 백동 등 금속 재료로 되어 있어 주로 살림이 넉넉한 상류층에서 사용되었다. 사진 1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등경 겸용 촛대 유물이며, 놋쇠를 이용하여 수반형(水盥形)의 받침에 4단 등경걸이와 촛대를 함께 세웠다. 받침대에 나팔형태의 기둥을 세우고 한쪽엔 등경걸이를, 다른 한쪽엔 뾰족하게 도드라진 돌기를 만들어 여기에 촛대를 꽂아 세우는 걸쇠를 걸게 하였다. 그리고 등경걸이 뒤쪽으로 위에서 두 번째 단(段)에 초심지의 불을 끌 때 사용하는 불집게를 가는 사슬로 매달고, 받침의 굽 쪽에는 고리가 달린 서랍까지 만들어 놓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등경걸이는 옆에서 보면 마치 '돛' 자처럼 생겨서 명칭 또한 '광명두(光明斗)' 또는 '광명두리' 라고 하며, 고려시대부터 사용하던 양식이다. 기둥 윗부분이 마치 고사리가 피기 전 모습을 하고 있어 일명 '고사리말림형' 등잔대라고도 한다. 4단(段)의 걸이용 기둥[竿柱]에는 등잔받침과 기름받이를 위 아래로 걸어 등잔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촛대 뒤쪽에는 박쥐무늬 파초선(芭蕉扇)의 불부채(火扇)를 달아 길상(吉祥)의 의미를 더하였다.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2는 기둥이 날렵하게 빠진 장식 없이 단순한 형태로, 꼭대기에 심지가 달린 호형(壺形) 석유등잔을 얹었다. 등잔의 몸체를 들어내면 꽃는 촛대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등잔 아래의 둥근 원반은 촛농받이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수직의 단조로운 형태에 균형을 맞춰주는 조형적 요소로 작용한다.

사진 3, 4는 동일한 촛대를 각각 측면과 정면에서 촬영한 것으로, 무쇠로 된 등경 겸용 촛대이다. 운두가 낮은 둥근 접시 모양의 반(盤) 가운데 마디가 하나인 대나무 줄기 모양(竹筍形)의 기둥(竿柱)이 있고, 그 끝에 원통형 초꽃이를 2단으로 얹었다. 그 사이에는 방향을 바꾸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말굽형의 등잔받침을 걸었다. 하단 초꽃이 바로 밑에는 고리를 이용해 끼워둔 3종의 불부채(火扇)를 단 자루가 달려 있다. 불부채는 세 개의 얇은 원형판을 살짝 겹쳐 들어가게 만들었으며, 이리저리 돌리며 바람을 막고 또한 촛불의 밝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밑받침인 반의 가운데 바닥에는 기둥(竿柱)과 연결하는 데 사용한 못 자국이 있고, 그 주변에도 굽 역할을 하는 못이 세 개 박혀 있다. 일반적으로 무쇠로 만든 등잔대나 촛대의 경우에는 쇠의 부식을 막기 위해 더러 옷칠한 흔적을 볼 수 있다. KEA

사진 및 자료 / 이화여대박물관, 덕성여대박물관, 한국등잔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1 유제등경겸용촛대[鑄製燈檠兼用燭臺]// 조선시대// 높이 77.5cm, 받침지름 29.5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사진 2 유제등가겸용촛대[鑄製燈架兼用燭臺]// 조선시대// 높이 53cm// 한국등잔박물관

사진 3, 4 철제등경겸용촛대[鐵製燈檠兼用燭臺]// 조선시대// 높이 52cm, 바닥지름 16.5cm// 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